

## 호스피스 견학을 다녀와서...

정영미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전인치료센터 간호사

호스피스 단기교육 과정 중 호스피스 견학이 있어 광주 천주의 성요한 병원으로 가기로 예정이 된 날이었다.

그런데 전날부터 열심히 하늘에서 비를 내리더니 가는 날 아침까지 폭우처럼 비를 뿌렸다 사실 비가 많이 와서 견학이 취소 되겠지 하는 생각도 했는데 호스피스 수녀님께서 그래도 갈거라고 하여 많은 걱정을 하면서 버스에 올랐다.

우리의 목적지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수녀님이 무사히 견학지로 갈 수 있게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심을 기도해 주셨다.

수녀님의 기도 덕인지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심인지 무사히 우리의 목적지에 도착을 했다.

건물을 보고 오래된 병원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외관만 보고 판단을 하면 안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아무 선입관 없이 설명을 들어야겠다고 생각 했다.

3층이 호스피스 병동이었다.

첫 느낌!

어쩌면 이렇게 깨끗하고 조용할까

화장실에서도 냄새가 아닌 향기가 났다.

복도에서 이어지는 멋진 정원까지 감탄이 절로 나왔다.

벌써 10년의 역사를 가진 유서 깊은 곳 이라하였다.

아무도 관심을 안 가졌을 때부터 호스피스에 관심을 둔 곳이라 그런지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지금은 많은 지역주민들이 호스피스를 안다고했다.

무엇보다 놀란 건 가정호스피스가 너무나 잘되

어있었다.

의뢰가 들어오면 먼저 가정호스피스팀에서 환자를 만나보고 병동에 입원을 한다고 했다.

병원에서 오래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 좋아지고 진통제로 조절이 되면 퇴원을 했다가 다시 안좋아지면 온다고 하였다.

호스피스의 원래 취지와 맞는 것을 보고 놀랐다.

어쩌면 당연한 것을 놀랐다고 하는 것에 이상하다고 하겠지만 집에 가면 통증으로 고생할 것을 생각하고 퇴원을 안하시는 분이 많은 것이 현재 저희 병원의 현실이라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식사를 못한다고 많은 수액과 영양제를 달고 있던 모습을 보다가 진통제 주사만 달고 있는 모습이 무척이나 생소했다.

호스피스 교육과 학회에서 듣고 보고 했던 외국 호스피스 병원과 흡사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식사를 못하면 안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수액을 안달면 큰일 난다고 생각을 많이 한다. 저도 한국 사람이라 조금은 그런 생각이 있지만 너무 많은 수액과 영양분은 도리어 환자를 힘들게 한다는 것을 요즘 깨우쳐 가고 있는 중이라 그런 모습이 너무나 보기 좋았다.

환자를 손님이라 부르는 모습이 조금은 생소했다.

외국에서는 patient가 아니고 client 라고 부른다는 것을 배웠지만 손님이라 부르는 모습에서 환자를 그냥 아픈 사람이 아닌 한명 한명의 귀중한 손님으로서 대우를 해준다는 느낌이 들었다. 사실 백화점에서는 손님이 왕이라고 하여 한명 한명에게 정성을 다하는 모습을 보지만 병원에서는 사실 그

렇게 하는 모습을 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적어도 5년 이상이 된 간호사들만 호스피스 병동 간호사로 둔다고 했다 그래서 그런지 내가 본 간호사님의 모습들이 참 여유있게 보였고 호스피스 병동 간호사라는 것에 대한 자랑스러움이 느껴졌다.

우리 병원도 호스피스를 시작한다는 몇 년이 되지 않았지만 이번엔 호스피스 지원사업에 선정이 되고 병동을 리모델링 하면서 호스피스의 모습을 갖추었다.

호스피스 환자를 간호하면서 느끼지는 여유로움과 자랑스러움을 느끼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러야 할지 너무나 많은 것을 배워야 할 것 같았다.

마지막으로 가정호스피스팀의 선생님의 말씀이 너무나 인상 깊었다.

지금은 나라에서 호스피스를 지원하고 있어 많은 환자들이 좀 더 많은 혜택을 보고 있다고 하면서

이제는 더 많은 손길이 필요하고 관심을 요하는 에이즈환자 등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에게 관심을 쏟을 예정이라고 하였다.

그분의 설명을 듣는데 성경 말씀이 떠올랐다.

100마리의 양에서 99마리의 길을 찾아 온 양보다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마음을 주시는 예수님이 생각이 났다.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돌아오는 버스에 올랐다.

돌아오는 길도 역시 수녀님의 기도는 주님이 함께 하심을 구하였다.

우리와 끝까지 함께 동행 하신 주님이 있어서 무사히 도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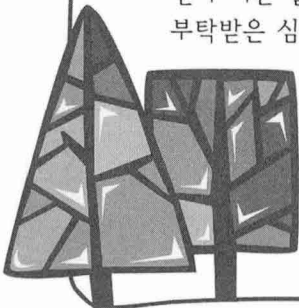
아마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않을까 생각이 들었다.

가는 길이 사람마다 틀리고 복잡하지만 주님께서 어느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항상 알려주신다는 것을...

### 맛 있는 하루

무슨 일부터 할 지 모를 적엔  
먼저 요일별로 정해놓고 '날마다의 숙제' 를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교안 준비하는 날,  
쌓아둔 잡지들 살펴보고 도서실에 내는 날,  
빨래하는 날, 편지 쓰는 날, 시 쓰는 날,  
환자 방문하는 날, 어려운 이웃에게  
전화 거는 날, 표시해둔 신문기사 오리는 날,  
부탁받은 심부름들을 우선적으로 챙기는 날,

옷 정리하고 바느질 하는 날, 색종이로  
무언가를 만들고 선물 포장하는 날등....  
하루하루를 맛있게 재미있게 요리하는  
방법을 경험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이해인(항기로운 말을 거는 꽃처럼)중에서 -